

# 스타 수령과 독재자

Part1. 만약 내가



Part1. 만약 내가

이야기 속  
인물의 마음을  
상상해 봅시다.



# 활동3. 신호등 토론







# 신호등 토론이란?

- 준비물 : 1인당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의 포스트잇 1장씩 (혹은 색종이)
-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.





# 신호등 토론이란?

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따라  
색을 정하고 손에 들면 됩니다.

반대

아직/  
중립

찬성





## 신호등 토론이란?

같은 색을 든 사람들의 근거를 모두 들어볼  
것이고, 똑같은 근거를 말해도 좋습니다.  
이때 노란색을 든 경우도 왜 아직 결정을 못  
했는지 혹은 중립인지 생각을 문도록 할 거예요.

반대

아직/  
중립

찬성





신호등 토론을 해 봅시다.



주제



: 페페 시장을 뽑은 것은 잘 한 일이다.

반대

아직/  
중립

찬성



# 활동4. 만약 내가 (2)







# 페페 시장을 뵈은 이후..?.

집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지 마시오.



~~집에서~~ 노래를 크게 부르지 마시오.



~~집에서~~ 노래를 ~~크게~~ 부르지 마시오.



이제 그만! 무조건 조용히!

법이 이렇게  
바뀌게 된 이유는  
무엇일까요?

만약 라파스의  
시민이라면  
행복했을까요?





# 만약 내가 ~라면?

## ‘만약 내가 가이토/페페라면’ 어땠을지 상상해봅시다.

그런데 하필이면 그 방고나무 바로 옆에  
까맣스러운 페페 시장이 살고 있지 뭐예요!



페페 시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.  
“여기서는 노래 금지요! 뽀뽀로 성해져 있소!”  
그러자 가이토가 명랑하게 말했어요.  
“그쵸. 어리석은 뽀뽀로군요, 이 방고 향기 좀 맡아 보세요.  
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?”  
페페 시장은 씩씩대며 소리쳤어요.  
“흥! 그럼 저 냄새 나는 나무를 잘라 버리겠소.  
그래도 노래를 부를 뉘가?”  
씩씩한 가이토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답했어요.  
“흥겨웁은 말하겠지만 난 노래 부를 겁니다.”

가이토는 노래를 계속했어요.



이 싸움의  
승자는  
누가 될까요?

다음 시간 계속.  
to be continued...

